

### 베를린·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 현장의 감동 그대로

1월1일·3일 메가박스 광주점 중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를 만난다.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중계했던 메가박스는 올해 빈 필하모닉과 함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를 광주점을 비롯한 12개 상영관에서 선보인다.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홀에서 열리는 빈 필 신년음악회는 2014년 1월 1일 오후 7시15분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단원들이 직접 지휘자를 선정하는 빈 필의 신년음악회에는 지금까지 카라얀, 로린 마젤, 주빈 메타 등이 다녀갔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을 잡는 이는 다니엘 바렌보임이다. 해마다 연주되는 '라테츠키 행진곡' 등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1월 3일 오후 8시15분부터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를 녹화 중계한다. 2013년 12월 31일에 진행

되는 공연 상황이다. 명장 사이먼 래틀이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은 흥겨운 무곡으로 레퍼토리가 짜여졌다. 연주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드보르작의 '3개의 슬라브 무곡', 하차투리안의 '4개의 칼의 춤' 등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가장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랑랑의 협연 무대로 더욱 기대를 모으는 공연이다. 협연곡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다. 티켓 가격 성인 3만원, 청소년 1만5000원. 관객에게는 2014 메가박스 공연콘텐츠 시즌북이 증정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일보·비엔날레재단 공동 '광주문화포럼' 제6강

# 예술과 법, '시대의 거울'이자 '불편한 관계' 표현의 자유, 현재질서에 저항 충돌하기도

### '현대미술과 법'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교수

"문화와 미술, 음악,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예술은 표현 방식이 달라도 시대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법과 통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술과 법이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예술 작품은 간혹 현재질서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광주문화포럼' 마지막 강좌가 지난 17일 광주비엔날레 제문헌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대미술과 법'을 주제로 미술과 법을 연결하며 열띤 강의를 했다.

안 교수는 "법을 가리는 직업이 있으면서도 정작 타인의 불행만을 보고 살아온 게 대부분이었고, 그런 면에서 직업적인 열등감과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으며 상대

적으로 항상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위대해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안 교수는 이날 함무라비와 모세의 법에서 동성결혼법과 북한인권법에 이르기까지 고대와 현대 미술작품에 투영된 다양한 시대상과 건축, 디지털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의 분화와 융합에 따라 그 속에 투영된 법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이날 자주 등장한 그림은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었다.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를 그린 그림이요. 대부분 칼과 저울을 들고 있죠. 가벼움과 무거움을 가능하게 하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과 죄의 경중을, 칼은 법 집행의 엄정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은 눈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저울질을 할 때, 즉 법을 집행할 때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죠."

간혹 잔혹한 장면을 표현한 그림도 눈에 띄었다.

"법을 표현한 작품 중 유독 인기를 끄는 게 재판과 처벌에 관한 그림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캠비세스 왕의 재판'이지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참형으로 꼽히는, 산 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형벌이 있는데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뇌물받고 부패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이같은 형벌을 내렸어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이같은 장면은 그림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안 교수는 "일종의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기려는 의미

였다"고 알려졌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제라드 다비드가 고향인 브뤼헤시의 의뢰를 받아 그린 것으로, 시 청사 '정의의 홀'에 걸어두고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근절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시대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시대를 극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예술이지요. 하지만 사회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현재질서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편한 관계로 보는 거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사상·음란·명예훼손, 유통과정 등에서 미술과 법이 충돌한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예술 가운데서 가장 대중적으로 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분야가 미술"이라며 "과거에는 작품에 대한 사상의 자유, 인권의 자유가 위축됐던 반면 현대에는 많이 자유로워졌으며, 이러한 점에서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며 또한 나라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흥미로운 주제였던 만큼 이날 강의실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했으며, 참석자들은 2시간여 동안 이어진 강의를 진지하게 들었다.

광주문화포럼에서는 지난 7월 최정화 작가를 시작으로 매월 마리아 린드 스톡홀름 아트센터 관장, 이음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회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17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열린 광주문화포럼에서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대미술과 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송년음악회

21일 광주문예회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연주단체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송년음악회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의 객원 지휘자는 정나라씨다. 독일 호프 시립오페라극장 상임 부지휘자를 역임한 정씨는 현재 독일 빌레펠트 시립오페라극장 상임부지휘자, 웅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 그리그의 '페르퀀트 조곡 1번',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이다.

KBS 교향악단 수석을 거쳐 현재 계명대 교수로 재직중인 플루티스트 김영미, 하프리스트 박라나(서울시향 단원), 피아

니스트 박진희(순천대 겸임교수)씨가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 협주곡 다장조',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이번 음악회는 1996년 창립된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 가입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티켓 가격 일반 1만 5000원, 학생 1만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062-953-39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조대원 개인전 22일까지 롯데갤러리 '희망의 끈'

광주 롯데갤러리는 오는 22일까지 조각가 조대원씨를 초대해 '나나노(NINANO)'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조씨의 세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미지는 십이지신상이다. 획일화되고 상품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십이지의 수면인신상(獸面人神像)을 통해 표현했다.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형상을 차용, 동서양 문화의 혼재와 소용, 글로벌 시대의 비즈니스 문화를 해석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작품들이다.

새의 부리와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아 울린 인물상의 모습은 기묘한 결합을 보인다. 우리의 현재가 동물의 생존 욕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전시 주제 '나나노'는 경기 민요의 후렴구에 쓰이는 소리다. 작가는 흥겨운 후렴구와 현대인의 삶의 고충을 대치시키며 작품 주제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조시대 조소과를 졸업한 조씨는 무등미술대전과 전남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1-1808. /김정민기자 kki@

### 고흥 남포미술관 31일까지 특별전 '여자만을...'

여수와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로, 중견, 청년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특별기획전 '여자만(女自滿)을 넘어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여수와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종래·강종열·김만옥·김상산·김용근·김정하·김현승·서남수·양재영·오웅진·이을배·이정자·이준립·이형모·장안순·장영주·정정복씨 등 모두 17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작가들은 자기성찰을 통해 작업한 개성 넘치는 작품 50여점을 전시한다.

남포미술관은 최근 나로우주센터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관련 시설이 고흥에 들어서고 있는 것과 오는 2020년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도교'가 놓이는 것에 주목했다.

여자만을 단순히 가로지르는 편리한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여자만권 중소도시들이 문화로 소통하면서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는 취지다.

관객수 관장은 "장구한 역사 속에 혈맥처럼 살아 숨 쉬는 남포미술관의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832-0003. /김정민기자 kki@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농성역 | 광주신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